

국별 리포트

루마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238천 km ²	G D P	1,880억 달러
인구	21.9 백만명	1 인 당 GDP	8,770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가미)	통 화 단 위	Lei
대외정책	EU 가입 추진	환 율(달러당)	3.05

- 루마니아는 유럽 동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몰도바, 헝가리, 세르비아, 불가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인접국인 헝가리, 불가리아, 세르비아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루마니아의 NATO 가입 이후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2005년 미국의 루마니아 내 군사기지 건설 허용 등으로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몰도바와는 루마니아의 내정간섭으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취임한 에밀 보크 전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루마니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하락하였으며 에밀 보크 총리는 IMF의 구제금융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 긴축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 2012년 2월 6일 총리직을 사퇴하였으며 후임자로는 미하이 라즈반 운구레아누가 임명되었음.
- 루마니아는 2004년 NATO 가입 및 2007년 EU 가입에 성공함에 따라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2009년 3월 IMF 등과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였음. 또 2011년 3월에는 IMF와 47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기성차관 협정을 체결함.
- 루마니아는 2014년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경제개혁을 추진 중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1년 경제침체 지속

-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시장인 EU 지역의 경기가 침체하여 수출이 둔화되고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내수가 위축되어 -7.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10년에는 루마니아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시행으로 인해 -1.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농업부문의 호황, 수출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 수준을 기록하며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나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EU 지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 회복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8%로 둔화

- 2009년에는 농작물의 양호한 작황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하락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5.6%를 기록하였음. 2010년에는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방안으로서의 부가가치세 인상(19%→24%,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조치, 식료품 및 유가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6.1% 수준을 기록함.
- 2011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 및 경기침체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8%로 전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성장률	6.3	7.3	-7.1	-1.3	2.0
재정수지 / GDP	-2.6	-4.8	-7.3	-6.5	-4.3
소비자물가상승률	4.8	7.8	5.6	6.1	5.8

자료: IMF, EIU.

□ 재정수지 적자폭 점진적 개선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07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으로 2.6%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총선 관련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4.8%로 확대됨.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수당 지출 증가 등의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및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7.3%로 확대되었음.
- 루마니아 정부는 2010년 이후 EU 및 IMF의 긴축 재정정책 운영 권고에 따른 공공부문 임금 삭감, 조세 및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통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2011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6.5%, 4.3%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재정적자 개선이 중요 경제현안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제조업 부문의 취약성 지속

- 1990년대 이후 루마니아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속, 제조업 기술력 육성 실패 등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나, EU 가입 이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루마니아의 산업별 GDP 구성은 점차 다각화되고 있으나 2011년 기준 루마니아의 총 수입에서 기계류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여전히 제조업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GDP 구성(2011): 서비스업 51%, 제조업 39%, 농림수산업 10%

- 특히 루마니아 경제의 제조업 부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자동차 산업도 2009년 이후 유로존의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 위축으로 국내외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EU 회원국에 편중된 무역의존도 형성

-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0년 기준 EU 회원국이 루마니아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011년에는 약 72%로 EU 회원국의 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화됨.

□ 2010년 이후 통화가치의 점진적 안정추세 시현

- 루마니아 통화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치변동이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남.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통화가치가 급락하여 2009년 2월에는 사상 최저인 미달러 대비 3.4레이, 유로화 대비 4.3레이를 기록한 바 있음. 2010년 이후에는 통화가치가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2011년에는 연평균 미달러 대비 3.05레이, 유로화 대비 4.24레이 수준을 기록함.

* 레이/미달러(평균): 2.52('08) → 3.05('09) → 3.18('10) → 3.05('11)

* 레이/유로화(평균): 3.70('08) → 4.24('09) → 4.23('10) → 4.24('11)

나. 성장 잠재력

□ 기업 경영여건 평가순위, 2011년 소폭 하락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 루마니아는 2010년 65/183에서 2011년 72/183으로 평가되어 기업경영여건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사업등록 절차, 투자자 보호제도 및 법규 등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순위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됨.
- 루마니아의 구조적 문제는 관료주의로 인해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외국인 투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규제 간소화,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경기침체로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위축

- 2008년 FDI 유입액은 139억 달러로 경상수지 적자액의 60%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2009년 중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약 65% 감소한 48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로 2009년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하여 동 FDI 유입액은 경상수지 적자의 70%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규모였음.
- 2010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한 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국외 경기침체와 과도한 정부의 규제로 2011년 FDI 유입액 전년 대비 약 37% 감소한 2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상수지 적자의 30%를 보전할 수 있는 규모였음.

* 연중 FDI 유입규모 추이: 48억 달러('09) → 35억 달러('10) → 22억 달러('11)

다. 정책성과

□ 2009년 3월 IMF 등과 2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합의로 경제위기 진정

-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3월말 IMF 등과 2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음. 이에 따라 루마니아는 2008년 10월 이후 헝가리,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에 이어 동유럽 국가 중 다섯 번째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가 되었음.
-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조건으로 공공부문 임금 25%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19%→24%) 등의 강도 높은 재정 긴축안이 제시됨. IMF 등의 구제금융 협정 체결로 루마니아는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 지원이 루마니아의 통화가치 안정 및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2011년 3월, IMF와 신규 대기성차관 협정 체결

- 루마니아 정부는 2011년 3월 31일, IMF와 2년 만기 47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기성차관 협정을 체결하였음. 이는 지난 2009년 3월에 IMF 등

과 체결한 구제금융 지원협정이 2011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가 예비적 성격의 신규 협정(EU 14억 유로, 세계은행 4억 유로)을 체결한 것임.

- 신규 대기성차관 협정 체결로 루마니아 정부는 IMF의 지원조건인 재정적자 감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연말 기준 3.0% 이내로 감축할 것과 의료보험제도, 조세 제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추진을 IMF는 권고하고 있음.

□ 2008년 8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단행

- 2007년 10월 긴축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 이후 루마니아 통화당국은 2008년 8월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에 대해 IMF는 민간부문의 외화 차입 증가로 인한 신용팽창에 루마니아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기준금리를 2008년 8월 10.25%에서 2011년 11월 5.75%로 인하하였음.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고 유럽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루마니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2012년 2월 금리를 5.5%까지 인하하였음.

* 기준금리 변화: 7.5%('07.11) → 10.25%('08.8) → 10.0%('09.2) → 7.5%('10.1) → 7.0%('10.2) → 6.5%('10.3) → 6.25%('10.5) → 5.75%('11.11) → 5.5%('12.2)

3. 대외거래

□ 2011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 수준 유지

- 글로벌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 발생으로 GDP 대비 11.6%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2009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해외 근로자의 송금 감소가 경상수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GDP 대비 적자 비중이 약 4.3% 수준으로 크게 축소됨.

- 2010년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된 4.0%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수출증가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폭은 감소하였으나 유럽 경기침체에 따라 해외로부터 송금 감소에 따른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 상 수 지	-23,080	-23,719	-6,955	-6,480	-7,600
경 상 수 지 / GDP	-13.5	-11.6	-4.3	-4.0	-4.0
상 품 수 지	-24,566	-28,182	-9,606	-7,805	-6,600
수 출	40,555	49,760	40,672	49,411	64,200
수 입	65,121	77,942	50,278	57,216	70,800
외 환 보 유 액	37,194	36,747	39,344	42,303	49,124
총 외 채 잔 액	84,033	104,698	117,511	121,555	141,403
총외채잔액/GDP	49.29	51.26	71.80	75.30	76.40
D S R	24.44	20.76	29.40	28.20	25.60

자료: IFS, EIU.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수입 대비 5.9개월분 확보

- 2009년 상반기에는 통화(Lei)가치 방어를 위해 루마니아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491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5.9개월분을 확보함.
- IMF 구제금융 지원으로 월평균수입대비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4.5개월분에서 2009년 말 7.6개월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유로존 경기의 일시적 회복으로 외환보유액은 소폭 증가함. 2011년에도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의 큰폭증가로 월평균 수입에 비해 외환보유액은 6개월 미만으로 축소됨.

* 외환보유액: 393억 달러('09년 말) → 423억 달러('10년 말) → 491억 달러('11년 말)

□ 2011년 총수출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루마니아의 총수출증가율은 -20.9%를 기록하며 대외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0~11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EU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여 총수출증가율이 각각 13.8%, 24.1%를 기록하며 크게 개선됨.

□ 외화차입 증가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160% 상회

- 2005년 자본거래 자유화 이후 민간부문의 외화차입이 급증하여 2006년 이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130%를 초과하였으며 2009년에는 IMF 등으로부터 외화차입이 증가하면서 200%를 상회함. 2010년 이후에는 총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1년 말 기준으로 165.9%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외채상환부담 누적

- 루마니아의 총외채잔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1년에는 76.4%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이후 총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으나 외채상환부담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긴축 반대 시위로 2012년 2월 총리 사퇴

- IMF로 구제금융을 받은 루마니아 정부가 공무원 임금, 실업 수당, 연금 삭감 등을 담은 재정 긴축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 에밀 보크 총리는 2012년 2월 6일 사퇴하였음. 2008년 취임한

보크 총리는 그해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루마니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국민의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였으며 최근 동유럽 한파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음.

- 후임 총리로는 미하이 라즈반 운구레아누(43) 전 외무장관이 임명되었으며, 2012년 11월에 의회, 선거 2014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각각 예정되어 있음.

□ 루마니아 정부의 부패는 여전

- 루마니아의 전총리와 여러명의 정부 관계자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사퇴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2011년 2월에는 국경지대에서 경찰 공무원 등 80여명이 담배 밀수로 구속되는 등 루마니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에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문제로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EU내 비자면제 조약인 쟁쟁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두 나라의 부정부패를 이유로 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업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 문제 잠재

-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급속히 상승하였음. 실업률은 2009년 7.8%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4.8%로 크게 하락했으나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4.1% 비해 아직 높은 수준임.

* 실업률: 4.1%('07) → 4.4%('08) → 7.8%('09) → 6.9%('10) → 4.8%('11)

- 루마니아는 2012년 1월 EU 회원국 중에서 빈곤율이 41.4%로 불가리아 41.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국가이며 빈부 격차 및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불안이 잠재되어 있음.

□ 긴축반대 반정부 시위 발생

- 루마니아 정부는 IMF와 합의한 2010년도 재정적자 목표치인 6.8%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 공공부문 임금 25%, 연금 15% 삭감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공공부문 노조와의 마찰이 야기됨. 또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 부문에 예산삭감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분만이 표출됨.
- 2010년 9월 24일 부카레스트에서 경찰공무원 수백명을 포함한 약 6천 명의 루마니아 공무원들이 임금삭감 및 인력감축에 대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2012년 1월 12일에도 루마니아 정부의 긴축정책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 최근 시위로 인해 에밀 보크 총리는 2012년 2월 6일 시위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루마니아 정부는 2011년 3월 IMF와 신규로 체결한 대기성차관 협정의 지원조건 충족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국제 관계

□ EU 및 NATO 회원국으로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 2004년 3월 NATO 가입 및 2007년 1월 EU 가입으로 주요 외교정책 기조는 동 체제 안에서 조율되고 있음. 따라서 2008년 8월 러시아의 그루지야 내 압하지와 및 남오세티아 독립 승인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NATO 및 EU 대응에 동조함.

* 2004년 NATO 가입, 2007년 EU 가입에 이어 현재 유로존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접국인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와는 전통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몇 안되는 코소보 독립('08년 2월) 미승인 국가임.

□ 러시아 및 몰도바와는 긴장관계 지속

- 러시아와는 NATO 가입 이후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2005년 미국의 루마니아 내 군사기지 건설 허용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나 분쟁 상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몰도바와는 루마니아의 잦은 내정간섭으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양국간 관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님.
- * 몰도바는 1940년 루마니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로 국민의 6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및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체제전환 이전 채무리스크줄링과 채무감면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후 채무구조 개선과 외환보유액 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음.
- 2011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단기 2.6억 달러, 중장기 21.2억 달러로 총 23.8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600만 달러로 전체의 1.09%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됨.

2. 국제시장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이후 현 수준의 등급 유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루마니아에 대하여 2008년 10월 S&P는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이후 루마니아의 신용등급을 추가 조정하지 않음. 2011년 7월 Fitch는 루마니아의 경기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함.

- 2009년 4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루마니아의 통화가치 하락, 외채구조의 악화 등과 더불어 IMF 구제금융에 따른 지원조건 이행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동 조정 이후 추가적인 등급조정은 발생하지 않음.
- * OECD: 5등급('03.1) → 4등급('04.1) → 3등급('07.1) → 4등급('09.4) → 4등급('12.1)
- * S&P: BB('03.9) → BB+('04.9) → BBB-('05.9) → BB+('08.10)
- * Moody's: Ba3('03.12) → Ba1('05.3) → Baa3('06.10)
- * Fitch: BB('03.12) → BBB-('04.11) → BBB('06.8) → BB+('08.11) → BBB-('11.7)
- * ICRG: 114/140(2008.10) → 91/140(2009.8) → 98/140(2010.8) → 92/140(2011.4)
- * Euromoney: 65/186(2009.9) → 68/186(2010.3) → 73/186(2010.9) → 72/186(2011.3)
- * I.I.: 66/178(2009.9) → 71/178(2010.9) → 76/178(2011.3) → 52.6/178(2011.9)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년 3월 30일(북한과는 1948년 11월 3일)

- 양국간 수교 역사는 짧은 편이나, 경제교류 확대를 바탕으로 문화, 항공 운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 구축이 진전되고 있음.
- * 한국-루마니아 주요 협정체결 현황
: 투자보장협정(1990), 문화협정(1991), 이중과세방지협정(1993), 항공운송협정(1994), 원자력협력협정(2004), 경제과학기술협정(개정, 2005), 사회보장협정(2010)

□ 2010년 이후 루마니아 교역규모 증가

- 1990년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9.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교역규모는 5.4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2011년 말 기준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의 76위 수출대상국, 64위 수입대상국임.

- 그러나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규모가 7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11년에는 8.3억 달러를 기록함.

<표 4> 한·루마니아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8.5	7.2	3.9	4.6	4.6	철강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수 입	0.8	2	1.5	2.4	3.7	자동차부품, 기계류(부품), 목재류
합 계	9.3	7.4	5.4	7	8.3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현황(2011년 9월 말): 총 28건, 4.3억 달러(누계기준)

- 우리나라의 대 루마니아 직접투자실적은 2011년 1~9월말 누계기준으로 28건, 4.3억 달러이며 2008~10년 연도별 직접투자 규모는 2009년 70만 달러, 2010년 3,016만 달러, 2011년 1~9월 270만 달러를 기록함.

V. 종합 의견

- 루마니아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09~10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농업부문의 호황, 수출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럽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속도는 더딘 것으로 보임. 유럽 경기침체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 가운데 단기유동성 위험이 다소 높아졌고 외채상환부담이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3월 IMF, EU 등과 2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2011년 3월에도 IMF와 45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기성 차관 협정을 체결하였음. IMF는 대기성 차관 지원조건으로 2012년까지 재정수지 적자폭을 3%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루마니아 정부는 지원조건 충족을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유럽 경기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관료주의로 인한 복잡한 행정절차, 사회간접시설 부족으로 외국인집적투자가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11년 3월 IMF와 신규 대기성차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까지 재정수지 적자폭을 3%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하락하였으며, 재정 긴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로 2012년 2월 에밀 보크 총리는 사퇴하였으며, 루마니아 정부 관계자들의 부정부패가 사회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 2008년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루마니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후 등급조정이 없었으나, Fitch는 2011년 루마니아의 경기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함.

조사역 서은주 (☎02-3779-5712)

E-mail: seoeunchu@koreaexim.go.kr